**그리스도 안의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

**9/23 월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4:4-5**  
**4** 그들 안에서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을 눈멀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5**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히 1:3**  
**3**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하나님의 실질의 표현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어 주시고 보존해 주시며, 죄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 있으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습니다.

**딤전 1:11**  
**11** 이 건강한 가르침은 나에게 맡겨진, 찬송받으실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따른 것입니다.

**행 26:18**  
**18**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 1:14**  
**14**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니, 은혜와 실재가 충만하였다.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에게서 온 독생자의 영광이었다.

**엡 1:6**  
**6** 이것은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되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

고린도후서 4장 5절은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한다. ‘이것은 … 때문입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인 사도들의 복음이 가려져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한다. 그 이유는 사도들이 자신을 전파하거나 높이지 않고 모든 것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전파하고 높였기 때문이며, 또한 예수님을 위하여 믿는이들의 노예로서 처신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물 위에 계셔서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는 것(롬 9:5)과 영원한 말씀께서 육체가 되시어 사람이 되신 것(요 1:14)과 예수님께서 사람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행 4:10-12)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13:33)과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셔서 주님(2:36), 심지어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의 광채(히1:3)로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신 것(행 10:36, 롬 10:12, 요 20:28, 고전 12:3)을 다 포함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이다. 따라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며, 사람의 마음속을 밝게 하고 빛나게 하고 빛 비춘다.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으로 가려지거나 이 시대의 신 곧 사탄에 의해 눈멀지 않는다면, 사람은 복음의 빛을 볼 수 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있는 ‘노예’라는 단어는 ‘주님’과 대조된다.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높였고, 자신들을 다만 믿는 이들을 섬기는 노예로 여겼다. 사도들은 그리스도께뿐 아니라 믿는 이들에게도 노예들이었다. (고린도후서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87-88쪽)

1. ***오늘의 읽을 말씀***

이 시대의 신은 사탄이다. 눈멀거나 너울로 가려진 이들은 자신이 어떤 것도 경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의 신은 사탄이다. 무신론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사탄을 숭배하고 있다.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이, 미개하든 문화 수준이 높든, 이 시대의 신에 의해 눈멀어 있다.

우리는 너울에 대한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한다. 그리스도 자신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든 간교한 자 사탄에 의해 너울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깨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계시를 받으려면 관념을 떨쳐 버려야 한다. 영적이든 세속적이든 모든 관념은 너울이다. 계시를 보려면 관념을 버려야 한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빛을 비추고 계신다. 이 은혜의 시대는 빛의 시대이다. 하나님은 빛을 비추시고, 성경도 빛을 비춘다. 그뿐 아니라 땅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은 은혜로 충만하시다. 그러나 성경이 빛을 비추고 그 영께서 움직이고 계시지만, 많은 사람이 여전히 계시를 받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떤 관념들을 붙잡고 있고, 그 관념들에 의해 가려져 있기 때문이다.

계시를 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 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하나님 편에는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문제는 전적으로 우리 편에 있다. 우리는 너울들, 즉 우리의 관념을 버려야 한다. 우리가 “주님, 너울이 되는 모든 것을 버리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의 관념을 붙잡는다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생각에 너울이 덮여 있었던 고대의 유대인들과 같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관념을 떨쳐 버린다면 너울을 벗은 얼굴로 성경을 읽게 될 것이고, 그러면 빛이 주관적으로 우리 안으로 비칠 것이다.

우리는 또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주님, 저는 당신께서 이 시대의 신을 패배시키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 이외의 그 무엇에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제 마음을 당신께 돌이키고 저의 모든 관념을 내려놓습니다. 저는 당신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경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한다면, 빛이 비칠 것이고 우리는 계시를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관념을 버리고 마음을 주님께 돌이킨다면, 너울이 벗어지고 이 시대의 신은 우리 존재 안에서 어떤 입지도 갖지 못할 것이다.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24, 26-27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1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24*

**9/24 화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4:6**  
**6**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빌 2:15**  
**15** 그것은 여러분을 나무랄 데 없고 순결하게 하여,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들이 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세대 가운데서 세상의 발광체들로 빛나서

**마 17:2**  
**2** 그들 앞에서 변형되시니, 그분의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희어졌다.

**마 5:16**  
**16** 이와 같이 여러분의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여러분의 좋은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시오.

**사 60:1-2**  
**1** 일어나라! 빛 비추어라!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로 솟아올랐음이라.  
**2** 보아라, 어둠이 땅을 덮고 짙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으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네 위로 솟아오르시고 그분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라.

**벧전 2:9**  
**9** 그러나 여러분은 선택받은 족속이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이며,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시어 자신의 기묘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분의 미덕들을 널리 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엡 5:8**  
**8**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심으로 새 언약의 사역자들과 그들의 사역이 산출된다. … 사도의 복음 사역의 영광(고후 4:6)은 모세의 율법 사역의 영광(고후 3:7, 출 34:29-30)과 비교된다. ‘마음속에’는 내적인 생명과 관련되는 반면, ‘얼굴에’는 내적인 생명과 아무 관련이 없다. 옛 언약의 영광은 표면에 있지만, 새 언약의 영광은 매우 깊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우리 마음’은 사도들의 마음을 나타낸다. 사도들은 신약의 모든 믿는 이를 대표한다.

같은 절에서 ‘밝히신’은 하나님께 빛 비춤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빛이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 것을 가리킨다. 이것은 … 마태복음 5장 16절의 비추어’,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5절의 ‘빛나서’와 동일하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비추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도록, 즉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신 그리스도(요 1:18)를 알도록, 먼저 우리 마음 속에 빛을 비추신다.(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88-89쪽)

1. ***오늘의 읽을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고후 4:6)은 모세의 얼굴(3:7)과 비교된다. … 복음의 영광은 은혜와 실재를 가져오신 분의 얼굴에서 빛나며, 의와 생명(고후 3:8-9)을 산출한다. 율법의 영광은 율법을 받았던(요 1:17) 사람의 얼굴에서 빛났으며, 유죄판결과 죽음(고후 3:7, 9)을 산출한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 것은 우리가 모세의 얼굴에 있는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알도록 우리를 비추시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모세의 옛 언약의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복음을 알도록 우리에게 빛 비추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표현되신 영광의 하나님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히1:3) 이시다.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89쪽)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과 일치한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6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도가 전파한 복음이 교리나 신학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곧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보여 주는 얼굴을 가진 사랑스러운 인격이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때, 이러한 비춤은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안으로 이끌어 온다. 우리는 그러한 그리스도께 매혹되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은 먼저 우리 안에 빛을 비추고, 그런 다음 우리 속에서 부터 빛을 비추어 낸다. 영광이 우리 속에서 빛날수록, 이 영광은 더욱더 우리 존재를 관통하고 적신다. 결국 우리 안에 있는 영광이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불태울 것이다. 즉 삼킬 것이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이 우리를 통해 빛을 비추어 낼 것이다. 이렇게 빛을 비추어 내는 것은 가르침의 방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하나님의 나타남이신 그리스도 자신을 체험할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존재의 깊은 곳을 비추셨고, 지금은 우리 안에서 빛나고 계시며, 장차 우리의 내적 존재 전체를 비추실 것에 대해 주님을 찬양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안에 영광으로 계신 그리스도의 내적인 비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의 경륜의 목표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영광을 비추어 내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 비춤 아래 있을 때,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적시시며, 우리는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달콤함을 누린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7, 140-141, 136쪽)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9*

**9/****25 수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4:7**  
**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빌 4:13**  
**13**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골 2:9**  
**9**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을 지니신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골 3:11**  
**11** 거기에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자와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이시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

**골 1:27**  
**27** 하나님은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성도들에게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인데,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고후 3:5-6**  
**5**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같이 여겨, 스스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충분한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고후 1:9**  
**9**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

우리의 복음 전파에는 빛 곧 비춤이 있어야 한다. …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신다는 뜻이다. 또한 우리는 그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럴 때 그들은 그리스도의 얼굴로 이끌리어 그분과 개인적인 접촉을 가지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저 어떤 사실들이 담긴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을 제시하는 것이다. 영광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들은 소중한 보배이신 그리스도를 그들 안으로 분배받아 소유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처럼 그들도 이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 될 것이다(비교 고후 4:7).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실 때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다. 이분은 하나님의 체현으로서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신다. 우리 마음속에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보배, 곧 놀랍고 귀하며 경이로운 보배를 갖게 된다. 약한 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바로 우리 안으로 빛 비추어 들어오신, 그리스도 안에 계신 하나님이다. … 지극히 귀한 보배가 가치 없는 그릇 안에 담겨 있다! 이런 사실로 말미암아 가치 없는 그릇들이 지극히 귀한 사역을 하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었다. 이러한 일은 부활 안에 있는 신성한 능력으로 성취되었다. 이 탁월한 능력은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7, 138-139쪽)

1. ***오늘의 읽을 말씀***

보배는 우리에게 우리의 생명과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의 체현이신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이다. 이 보배는 질그릇들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이며, 이 분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공급의 신성한 근원이시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인 사도들이 능히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함으로 자신들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보배의 탁월한 능력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있는 ‘이 보배’라는 표현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관해 말한 6절과 관련된다. 6절에서 ‘얼굴’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2장 10절에서 ‘인격’으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이다. 이것은 눈언저리 부분으로서, 감추어진 생각과 느낌을 보여 주는 표정이 나타나는 곳인데, 이러한 표정은 사람의 인격 전체를 보여 주고 나타낸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얼굴의 눈언저리가 없으면, 실지적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배가 되실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 한 면으로 우리 모두는 우리가 질그릇들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보배이심을 선포할 수 있다. 또 한 면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살며 그분의 존재의 눈언저리를 주목할 때에만,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배이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온 우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우리가 그분의 임재 안에 살수록, 우리는 더욱더 그분의 임재를 느낄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옛 인격을 버리고, 그 대신 그리스도의 눈언저리를 바라보며 그 분의 임재를 누림으로써 그분을 우리의 인격으로 취하기를 배운다면, 우리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에 대한 달콤한 느낌을 가질 것이다. 이러한 체험은 우리를 기쁘게 할 뿐 아니라 빛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부터 밖으로 빛날 것이다.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빛을 통하여 탁월한 보배이신 영광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 우리는 우리 안에 보배, 즉 세상보다 더 탁월하고 살아 있는 인격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온 우주에서 가장 탁월한 분이시다. 그분보다 더 탁월한 것은 없다. 우리는 보배이신 그리스도, 곧 가장 탁월하시고 가장 사랑스러우신 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탁월하시고 사랑스러우신 그리스도라는 보배보다 못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세상보다 주님을 더 보배롭게 여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7, 139-140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0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 — 서신서들, 메시지 317*

**9/26 목요일**

***아침의 누림***

**고후 3:18**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롬 8:29**  
**29**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히 2:9**  
**9** 다만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그분은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롬 12:2**  
**2** 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고후 3:3, 16-17**  
**3** 왜냐하면 우리가 사역하여 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편지는 먹이 아니라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돌판이 아니라 육신의 마음 판에 쓴 것입니다.  
**16**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17** 더구나 주님은 그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께서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

사도들은 … 모든 믿는 이의 본과 대표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다. 고린도후서 3장 8절과 9절에서의 영광은 새 언약의 사역과 관계가 있지만, 3장 18절에서 영광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인 사도들과 관계가 있다. 이것은 새 언약의 사역이 단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수행하는 어떤 활동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오히려 그것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존재이다. 새 언약의 사역자들은 자신들의 사역과 하나이다.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동일한 영광이 그들의 일과 그들 자신을 적시고 충만하게 하여 그 결과 둘 사이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기 때문이다.(고후 3:18 각주 2)

우리의 얼굴에서 너울이 벗어졌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킴으로 너울이 벗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그 영이신 주님께서 율법의 속박에서, 곧 너울로 가려진 데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와 주님 사이에 더 이상 막힘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후 3:18 각주 3)

1. ***오늘의 읽을 말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은 우리 자신이 주님을 보는 것이다. 주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고후 3:18 각주 6)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하는 거울과 같다. 그러므로 잘 보고 합당하게 반사할 수 있도록 우리 얼굴에서 너울이 완전히 벗어져야 한다.(고후 3:18각주 4)

우리가 너울을 벗은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주목하고 반사할 때, 주님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의 요소를 우리에게 주입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진대사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으며, 그분의 생명의 본질로, 또 그분의 생명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생명의 외형을 갖게 된다. 이것은 주로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롬 12:2) 그분의 형상으로 변형되는 것이다. ‘변화되어’는 우리가 변화의 과정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고후 3:18 각주 8)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은 부활하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을 이루는 것이다. 즉 그분과 똑같이 되는 것이다(롬 8:29).(고후 3:18 각주 7)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른 단계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 부활 안에 있는 생명 안에서 계속되는 과정을 나타낸다.(고후 3:18 각주 9)

‘주 영’이라는 표현은 … 주 그리스도께서 그 영이시라는 것과 그 영께서 주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입증하고 확증한다. 고린도후서 3장에서 이 영은 쓰시는 영(3절), 생명을 주시는 영(6절), 사역하시는 영(8절), 자유하게 하시는 영(17절), 변화시키시는 영(18절)으로 계시된다.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은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새 언약의 경륜을 위한 사역자들의 사역에 대단히 중요하다.

사도는 새 언약의 사역에 대해 말한 후에 새 언약의 사역자들에 대하여 말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까지에서 사도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을 이렇게 묘사했다. 즉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킨 사람들, 얼굴에서 너울이 벗어진 사람들,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 영이신 주님을 누리는 사람들, 주님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사람들로 묘사했다. 그들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통하여 그 영에 의해 그리스도의 인격과 일의 요소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역자들로 조성된다. 따라서 새 언약의 사역자들의 존재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고, 또 그리스도 자신으로 조성된 것이다. 그들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것, 즉 내주하시며 생명 주시는 영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그리스도를 주입하는 것이다. 믿는 이들은 모두 그러한 사역자들을 본받아 그들과 동일한 사람이 되고, 동일한 사역을 성취해야 한다.(고후 3:18 각주 10)

*추가로 읽을 말씀: 고린도후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30*

**9/27 금요일**

***아침의 누림***

1. **엡 5:8-9**  
   **8**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십시오.  
   **9** (빛의 열매는 온갖 선과 의와 참된 것에 있습니다.)
2. **요일 1:5**  
   **5** 우리가 그분께 듣고서 여러분에게 전해 주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은 빛이시며, 그분 안에는 어둠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3. **요 12:36a**  
   **36** 여러분에게 빛이 있는 동안에 그 빛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을 떠나셔서 몸을 숨기셨다.
4. **마 5:14**  
   **14**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산 위에 있는 성은 숨겨질 수 없습니다.
5. **요일 1:7**  
   **7**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안에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안에서 행하면, 우리는 서로 교통을 갖게 되고, 그분의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온갖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6. **롬 5:21**  
   **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7. **요 16:13**  
   **13** 그러나 실재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재 안으로 안내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말씀하시며, 장차 올 일들을 여러분에게 알려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

전에 우리는 어두웠을 뿐 아니라, 어둠 자체였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일 뿐 아니라, 빛 자체이다(마 5:14). 빛이 하나님인 것처럼 어둠은 사탄이다. 우리는 사탄과 하나였기 때문에, 어둠이었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빛이다.(엡 5:8 각주 1)

선은 빛의 열매의 본성이다. 의는 빛의 열매가 산출되는 길 또는 절차이다. 참된 것은 빛의 열매의 실재, 곧 참된 표현(하나님 자신)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의 실재로 표현되실 수 있으시도록, 빛의 열매는 본성에서 선해야 하고 절차에서 의로워야 하며 표현에서 참되어야 한다.

선과 의와 참된 것 안에 있는 빛의 열매는 삼일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선은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기 때문이다(마 19:17). 의는 아들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의로운 절차(롬 5:17-18, 21)에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러 오셨기 때문이다. 참된 것은 영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왜냐하면 그분께서 실재의 영이시기 때문이다(요 14:17). 참된 것은 또한 빛 가운데서 열매가 표현되는 것을 가리킨다.(엡 5:9 각주 1)

1. ***오늘의 읽을 말씀***

빛이 하나님의 본성의 표현이듯이, 어둠은 사탄의 악한 일 안에 있는 그의 본성이다(요일 3:8). 우리를 사탄의 어둠에서 구출하시어 신성한 빛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행 26:18, 벧전 2:9)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이 신성한 빛은 우리 안에서 운행하는, 아들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이다. 이 빛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을 비출 때, 어둠은 이 빛을 이기지 못한다(요 1:4-5). 우리가 이 빛을 따를 때는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8:12). 문맥에 따르면, 이 어둠은 죄의 어둠이다(요일 1:7-10).(요일1:5 각주 4)

신부인 교회에게는 실재와 은혜보다 한층 더 섬세하고 깊은 것이 필요하다. 즉, 사랑과 빛이 필요하다.

신부인 교회에게 필요한 것이 사랑과 빛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은 결혼 생활에서 우리 자신이 겪은 체험을 통해 입증될 수 있다. … 만일 남편과 아내가 항상 서로에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법만을 고려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가련한 일인가! 남편과 아내가 친밀한 관계를 갖기 위해서 단지 실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거기에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합당한 결혼 생활은 단지 실재에 따르거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랑과 빛 안에 있다. … 결혼 생활 가운데 아내와 남편 사이의 관계는 섬세하고 빛이 가득하며 친밀해야 한다.

사랑과 은혜의 차이를 이해하기는 다소 쉽지만, 빛과 실재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그보다 어렵다. 아마도 나 자신의 결혼 생활에서 직접 체험한 것을 예로 든다면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 부부는 오랜 세월 동안 결혼 생활을 해 왔다. 나는그 기간 동안 나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것에 따라 아내를 대한 경우를 단 한 차례도 떠올릴 수 없다. 오히려 나는 주님께서 주신 능력에 의해 언제나 아내를 향하여 빛 안에서 처신하였다. 빛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옳고 그름의 영역 밖에 있다. 빛 안에서는 무엇이 옳고 그른가, 즉 무엇을 해야 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분별할 필요가 없다. 빛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있는 그대로 행동하고 자연스럽게 어떤 방식으로 처신한다. 그러나 어둠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한 방법을 판별하고, 어림짐작하고, 더듬어 찾아야 한다. 빛 안에 있을 때에는 더듬어 찾거나 어림짐작하거나 판별할 필요가 없다.

내가 아내에게 지금 막 화를 내려고 한다고 해 보자. 이와 같은 경우에, 나는 이것이 실재에 따른 것인지 아닌지를 물어볼 필요가 없다. … 만일 우리가 … 빛의 영역 안에 머물고 있다면 그러한 고려를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빛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서 우리는 그런 특정한 경우에 화를 내는 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분별하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다.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1, 556-557쪽)

*추가로 읽을 말씀: 에베소서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1*

**9/28 토요일**

***아침의 누림***

1. **계 21:23**  
   **23** 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
2. **계 22:4-5**  
   **4**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  
   **5** 더 이상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3. **고전 2:7**  
   **7** 오히려 우리는 비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져 있던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4. **벧전 5:10-11**  
   **10**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부르신 분께서 잠시 동안 고난을 받은 여러분을 직접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터를 튼튼하게 하실 것입니다.  
   **11**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영원무궁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5. **살전 2:12**  
   **12** 그것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6. **롬 8:30**  
   **30** 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

요한계시록 22장 4절은 “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라고 말한다. 이것은 …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사람들이 영원 안에서 받는 축복이다. 이 절에서 ‘그분’은 하나님과 어린양 모두를 언급하는 것이다.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은 하나

님과 어린양의 얼굴을 보는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는 것(계 22:5)은 그분께서 구속하신 이들이 영원 안에서 받는 또 다른 축복이다. 우리는 등 곧 사람이 만든 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고, 해 곧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도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를 비추실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비추심 아래서 살 것이다.(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메시지 66, 773-774쪽)

1. ***오늘의 읽을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5절은 주님께서 그분의 성도들을 비추실 것이라고 말한다. 장래에 하나님의 무한한 영광은 새 예루살렘에서 등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빛으로서 밝히 비출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따르면, 거룩한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이며, 표현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그것이 곧 영광이다. 우리는 이 영광을 위해 미리 정해졌고, 이 영광에 이르도록 부름을 받았다(고전 2:7, 벧전 5:10, 살전 2:12). 우리는 이 영광 안으로 변화되는 중이며(고후 3:18), 또한 이 영광 안으로 이끌릴 것이다(히 2:10).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럽게 되어(롬 8:17, 30)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고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것이다. 거룩한 성에 있는 등과 빛은 둘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킨다.

새 예루살렘성 전체가 하나님이다. 빛이 하나님이고, 빛의 영광은 하나님의 표현이며, 빛의 모습은 민족들에게 계시되신 하나님 자신이다. 이 모든 것이 오늘날 교회생활 안에서 발견되어야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 안에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거처이시고, 그분은 또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이웃들에게 비치는 빛이시다. 이렇게 빛이 비치는 것이 또한 교회의 영광과 모습이다. 이것이 교회 생활이다.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그분의 일을 완전히 마치실 때, 교회는 투명한 성이 될 것이다. 새 예루살렘의 모든 금은 투명하여 하나님의 광채를 전달한다. 그 결과 그 빛에 의해 모든 것이 하나에 이르게 된다. 빛은 모든 것에서 죽음이 사라지게 하고, 모든 것을 머리이신 그리스도 아래 통일되게 한다. 그 성은 빛을 발산하여 민족들을 비춘다(계 21:24).

요한계시록 21장 24절은 민족들이 새 예루살렘으로부터 비치는 빛 가운데 다닐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한다. 천년왕국 후에도 민족들은 새 땅에서 백성으로서 살 것이다(21:3-4). 이러한 민족들에게 왕들이 있을 것이고, 이 왕들은 자기 영광을 그 성으로 가져갈 것이다. 구속받은 이들인 우리는 영원 안에서 민족들을 다스리는 왕가가 될 것이다. 민족들은 유기적인 건축물인 새 예루살렘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 전체가 그분의 영광의 빛 비춤 아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구속자이신 그분 안에서 그리고 발산체인 구속받은 이들을 통하여 빛을 비출 것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은 새 예루살렘과 그 주위의 민족들을 포함한다. 새 예루살렘을 구성하는 구속받은 이들은 다스리는 왕들이고, 새 예루살렘 주위의 민족들은 백성들이다.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새 예루살렘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다(계21:24상). 그들은 인간사와 관련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햇빛 아래, 그리고 사람이 만든 등불의 빛 아래 살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련된 일에서 민족들은 백성들로서 신성한 빛 가운데 다닐 것이다.

하나님의 건축의 최종 완결인 새 예루살렘은 오늘날의 교회생활에 대한 완전한 그림이다. 우리가 거룩한 성의 그러한 축소판이라면, 빛이신 하나님으로 빛날 것이다. 그러면 믿지 않는 이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다. 우리는 주위의 모든 사람을 밝힐 것이다.(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6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메시지 436, 308-310쪽)

*추가로 읽을 말씀: 신약의 결론, 개정 증보판, 26권,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표현 — 요한계시록, 메시지 436*

1. **추가로 읽을 말씀** *고후 3:18 각주 1-11*
2. **찬송: 501 (英) 영광스런 사랑의 주  (中:382)**

**1** 영광스런 사랑의 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영원무궁한 한계 떠나서 시간에 제한되셨네

**(후렴)**

오- 그리스도 하나님의 표현 측량할 수 없는 풍성  
하나님과 사람 연합해 내 안에서 내 만유 돼.

**2** 하나님의 충만인 주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  
전엔 육체 돼 구속 이루고 지금은 내 영에 계셔

**3** 아버지는 아들 안에 아들 풍성 영 안에 있네  
그 영 내 안에 안식하시며 내 생활의 실재 되네

**4** 주의 영은 생명으로 내게 살아 있는 말씀 돼  
말씀 받을 때 그 영 접촉해 내 생명 공급 되시네

**5** 영 안에 주 바라볼 때 거울처럼 영광 반사해  
나는 변화돼 주의 형상 돼 주 나를 통해 나타나

**6** 이와 같은 생활만이 성결함을 이룰 수 있네  
이런 생활만 승리 이루네 영광의 생명 나타내

**7** 이로 인해 주의 영이 내 전체를 적셔주시니  
옛사람에서 구출되어서 온 성도와 주 거처 돼

**9/29 주일**

***아침의 누림***

1. **민 6:24-25**  
   **24**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복을 주시고 그대를 지켜 주실 것입니다.  
   **25**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그분의 얼굴을 비추시고 그대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2. **시 17:15**  
   **15** 제가 의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되리니 저는 깰 때에 주님의 모양으로 만족할 것입니다.
3. **시 42:5**  
   **5** 내 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여전히 찬양하리, 그분의 얼굴로 구원하시는 분을.
4. **고후 4:6-7**  
   **6** 왜냐하면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빛을 비추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밝히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 그러나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탁월한 능력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5. **고후 3:18**  
   **18**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Churchwide Truth Pursuit of Hebrews**

**Level 1—Hebrews Sequential Reading**

Scripture Reading and Copying: Heb. 11:23-31  
Assigned Reading: *Life-study of Hebrews*, msg(s). 56

**Level 2—Hebrews Topical Study**

Crucial Point: The Witnesses of Faith and the Work of Faith  
Scripture: Heb. 11:2-40  
Assigned Reading: *LS of Hebrews*, msg. 48  
Supplemental Reading: *CWWN, vol. 6,* "The Christian (4): Spiritual Teachings," chs. 10, 12  
Questions:  
1. Consider each of the witnesses of faith.  
2. In Heb. 11:13, what does it mean that the witnesses of faith saw the promises "from afar?"  
3. Of the manners of life of the witnesses listed in Heb. 11, which manner of life did the Lord use to speak to you the most?  
4. What does Heb. 11:40 mean?